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2024년 개신교인 대상 증오범죄 급증**



2024년 튀르키예 전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전년도보다 뚜렷하게 증가 했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넷내셔널이 29일 보도했다. 튀르키예 개신교 교회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개신교 신자와 교회들은 구두·서면 모욕과 물리적 공격, 행정적 차별 등 심각한 위협을 겪었다.

12월 31일 척메쾨이 구세교회 협회 건물은 괴한의 총격을 받았고, 가해자는 “무슬림 청년들을 세뇌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교도들은 지옥에 쓸려갈 것”이라고 외쳤다. 이외에도 에스키셰히르 구세교회(1월 20일)가 총격을 당했고, 바흐체리예블레르 은혜교회, 카르시아카 구세교회에서도 모욕과 공격이 이어졌다.

경찰은 일부 사건에서 탄피 수거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카르시아카 구세교회에서는 예배 도중 보안군이 신자와 방문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예배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수루치 교회의 목사는 서점에서 일하다가 “사람들의 종교를 바꾸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기독교인 개인도 차별과 불이익을 당했다. 말라티야의 기독교인 교사는 이유 없이 해고됐고, 쿠타히야 교회는 임대 거부로 예배처를 잃었다. 동흑해 구세교회 신자들은 직장에서 신앙 문제로 압력을 받아 교회를 떠나거나 해고됐으며, 무슬림과 결혼한 성도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말라티야교회 성도 두 명에게 거액을 제안하며 정보원 활동을 요구했고, 뤼레부르가즈 구세교회 지부는 폐쇄 운동과 법원 판결로 문을 닫았다. 디딤과 안탈리아교회는 홍보가 차단됐으며, 부활절, 크리스마스 초청이 여러 차례 금지됐다. 2019-2024년 사이 132명의 외국인 목회자와 성도들 역시 입국 금지·비자 거부로 추방돼 교회들이 지도자 부족을 겪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8일, 9명의 외국인 기독교인이 제기한 체류 제한 항소를 기각했으며, 언론 공개로 이들은 “선교사”이자 “국가의 적”으로 낙인찍혔다. 소셜미디어에는 사형 요구 글까지 등장했다.

튀르키예에는 214개 개신교 교회가 있으나 152개만 법적 지위를 갖고 나머지는 세금·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며, 교회 건물 부족과 임대 거부 등으로 예배처 확보가 어렵다. 법적으로 목회자 양성이 금지돼 교회들은 자체 세미나, 해외 유학, 외국 성직자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다. 개신교 교회협회는 튀르키예 정부에 ▲공무원 대상 종교 자유 교육, ▲외국인 기독교인 입국·체류 제한 철폐, ▲목회자 양성 보장 등을 권고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한1서 5:4-5)**

하나님, 신약의 초대교회가 시작된 땅이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임에도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튀르키예 정부를 꾸짖어 주십시오. 거짓에 미혹되어 헛된 신을 따르며 교회를 해하는 무슬림들과 위정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죄를 자복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의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군사로 굳게 서게 하소서.

### ▲ 분쟁 지역 내 선교사, 고난에 대한 건전한 신학 갖춰야

복음주의선교학회(EMS) 저널에서 대만 출신 장 우(Jeanne Wu) 박사는 갈등과 분쟁 지역 사역자들이 고난에 대한 건전한 신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선교사들은 철수와 잔류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선교사들은 주님의 음성을 통해 문을 열고 닫을 때를 분별하려 노력하는데, 파송단체의 판단, 현지인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 박사는 고난 속에서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건전한 신학이 필요하고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때론 선교지를 떠날 때 더 큰 믿음이 필요했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하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선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식의 기대에서 벗어나야 하며, 파송단체가 선교사의 죽음을 실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가장 큰 상실은 생명이 아니라 믿음을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히브리서 5:8-9)**

하나님, 부르신 땅에서 영혼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주께 의탁하오니 모든 갈등과 분쟁 지역에서 맞게 되는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 손에 끌들린 자 되길 축복합니다. 고난의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신학은 주의 말씀께 있사오니 날마다 진리를 상고할 뿐 아니라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주님을 전부로 얻게 하시고 몸 된 교회와 단체에도 더욱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의 연합을 통해 선교완성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 ▲ 세르비아 경찰, 반정부 시위대에 최루탄 등 강경 진압

세르비아 북부 노비사드에서 5일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의 독재에 항의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진압봉을 휘둘렀다고 뉴시스가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세르비아에서는 지난해 11월 노비사드 기차역이 붕괴해 1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시민들은 붕괴사고가 국가의 부패와 태만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시위가 시작됐다. 세르비아의 반정부 시위는 언론자유, 조기 선거, 역 붕괴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주도해왔다. 부치치 대통령은 시위대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 자신을 몰아내려는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해왔다. 수십 명의 대학교수와 학장, 고등학교 교사들이 시위 학생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으며 당국이 부치치 대통령 지지자들로 대체했다. 이날 부치치 충성파와 경찰이 점거한 한 대학 주변에서 시위대는 “우리는 선거를 원한다”, “부치치 물러나라”라고 외쳤으며, 경찰은 최루탄 가스, 섬광탄과 조명탄 등으로 시위대를 공격해 대학 캠퍼스에서 몰아냈다.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예레미야 33:15-16)**

하나님, 지난해에 일어난 기차역 붕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지금까지 이어져 정치·사회적 대립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세르비아를 주께 의탁 드립니다. 주여, 위정자들을 진리로 책망하사 사람으로서는 공의로울 수 없고 이를 실행할 능력도 없음을 인정하며 국민을 향한 강경한 대응을 멈추고 겸손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세르비아 교회를 더욱 진리로 거룩하게 하사 이들을 통해 공의로운 가지 되신 주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고, 여호와의 의를 사모하는 나라로 새롭게 하옵소서.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퀘벡주, 공공장소 기도 금지 추진 논란



캐나다 퀘벡주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기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독교 싱크탱크 '카더스'(Cardus)는 이 조치가 "신앙과 사회에 대한 깊은 오해를 보여 준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퀘벡의 장 프랑수아 로베르제 (Jean-François Roberge) 장관은 올 가을, 공공장소에서의 기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친팔레스타인 시위 중 무슬림 기도 모임에 대한 대응으로 제안된 것이지만,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로베르제 장관은 "거리 기도의 증가는 퀘벡에서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특히 몬트리올에서 거리 기도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시민자유협회(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는 해당 법안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공공 장소는 모든 사람의 것이며, 신념과 정체성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싱크탱크 카더스(Cardus) 역시 퀘벡 정부의 세속주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2019년 통과된 '법안 21'(세속주의 존중법)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 상징물 착용이 금지된 점, 그리고 사립 종교학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권고는 퀘벡의 종교 현실에 대한 깊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카더스는 최근 연구를 통해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 면제가 실제 공제액보다 10배 이상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 종교 학교는 시민 참여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퀘벡에서는 매년 2,090만 명 이상이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는 공연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전체를 합친 수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카더스는 "종교 공동체는 퀘벡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들의 사회적 헌신은 모든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빌립보서 1:26,28)**

하나님, 퀘벡 정부가 무슬림의 거리 기도 모임을 빌미로 공공장소에서의 모든 기도를 막는 법안을 추진하여 은밀하게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의를 꾸짖어 주십시오. 세속주의 정책으로 종교의 권위를 짓밟고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을 옳다 하며 하나님 두려워함 없는 정부의 모든 계획이 도말 되어 백성들이 바른길을 따르게 하소서. 믿음의 근간을 흔들려는 퀘벡주에 예수만 자랑하는 증인들을 통해 복음의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셔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 얻는 길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 ▲ 미얀마, 군사정권 집권 이후 ‘사기 센터’ 급증

미얀마에서 2021년 군사정권 집권 이후 대규모 사기 센터가 2.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연합뉴스가 가디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분석 결과 미얀마 내 태국 국경지대 대규모 사기 센터가 2021년 군사 쿠데타 이전 11곳에서 현재 27개로 늘어났으며 공장 규모도 매달 약 5만 5000m<sup>2</sup>꼴로 넓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 감금된 사람들은 암호화폐 및 로맨스 스캠에 동원되며 강제 노동, 고문, 인체 장기 적출 등의 극단적인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KK파크’는 5년 전 텅 빈 들판이었으나 이제는 2.1km<sup>2</sup>의 넓은 부지에 각종 빌딩, 병원, 레스토랑, 은행, 빌라 등 실리콘밸리 첨단기업 캠퍼스를 방불케 하는 ‘범죄단지’가 됐다. 가디언이 사기 센터들을 위성·무인기(드론)로 살펴본 결과 위성인터넷 수신기 추정 물체, 부유식 부두 등의 구조물이 최근 증설됐으며 높은 담장, 검문소, 감시탑 등 요새 수준의 삼엄한 경비의 작업장과 고급주택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었다. 올해 초 태국·중국 정부 등의 대대적 단속으로 이러한 시설에서 약 7,000명이 풀려났으나 올해 초 태국 경찰은 최대 10만 명이 감금된 것으로 추산했다. ASPI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이들 센터 보호로 이익을 얻는 민병대 등과의 관계로 시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요한1서 3:3-4)**

하나님, 미얀마에서 대규모 사기 센터가 군정이 집권한 이후 급증해 극단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에 주의 화평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범죄 단지가 들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를 방관하는 군사정권을 꾸짖어 주시고 이들과 짹하여 더욱 악을 행하는 어둠의 권세를 피하여 주옵소서. 감금된 자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미얀마 교회의 깨끗한 행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 ▲ 러시아, 국가 주도 메신저 ‘맥스’로 국민 통제 강화

러시아 정부가 자체 개발한 국가 주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맥스’를 국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인용해 보도했다. 사용자는 지난 6월 100만 명에서 9월 3,000만 명으로 급증했으나 아직 왓츠앱(9,600만 명)이나 텔레그램(9,000만 명)보다는 적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앱 개발 인가 법안을 승인해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과 푸틴 최측근인 러시아 IT 기업 VK가 개발을 맡았다. 맥스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종단 간 암호화(E2EE)방식을 지원하지 않아 채팅 기록, 연락처, 사진, 위치 정보 등 개인 정보를 당국이 열람할 수 있다. 가입에는 러시아나 벨라루스 전화번호가 필요하며, 번호 발급을 위한 신분증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추적될 수 있다. 이달부터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새 휴대전화에는 맥스가 의무적으로 사전 설치되며 공무원, 은행 직원, 병원 직원들 사용 메신저를 맥스로 바꾸라고 압박하고 있다. 맥스는 푸틴 대통령의 인터넷 장악 시도의 최신 사례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인터넷 권리 단체 RKS 글로벌의 사르키스 다르비냔 공동창립자는 맥스를 ‘주머니 속 스파이’라며 “시민들의 사적 소통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시편 19:2-4)**

하나님,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한 메신저를 이용해 국민을 더욱 통제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강제와 횡포로 악한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 나라를 돌아보옵소서. 백성들을 불신하고 감시하며, 이를 자신의 권력을 위해 악용하는 푸틴 정권을 꾸짖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주님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러시아 영혼들의 심령에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백성을 위해 하늘의 장막을 베푸신 주께로 돌아켜 구원의 은혜를 찬송케 하소서.

## “그 위로가 헛되므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경기 침체와 부패로 강경 이슬람주의자들 세력 확대해



최근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이 더욱 엄격해지고 강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에 한 노인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십대 소녀를 질책하고 뺨을 때리는 영상은 수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급속하게 퍼졌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의 강경화된 종교적 분위기가 일상생활에까지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퓨리서치(Pew Research)의 2023년 조사에서도 말레이시아의 무슬림들 중 86%가 샤리아를 국법으로 제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2018년, 국영투자기업 1MDB를 둘러싼 대규모 횡령과 부패 스캔들이 터지며 집권 세력과 최대 기득권 정당이었던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

정치권 전반이 타락했다는 인식 속에서 젊은 세대는 새로운 대안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말레이-이슬람당(PAS)이 부각되었다. 오랫동안 강경 이슬람 노선을 지켜온 말레이-이슬람당은 “부패하지 않은 도덕적 정당”으로 비쳐졌고, 그 결과 30세 미만 무슬림의 37%가 이에 지지를 보냈다. 이는 단순한 지지율 상승이 아니라, 젊은 무슬림 세대가 강경 이슬람을 사회 개혁의 대안으로 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전에는 주로 이슬람화 성향이 강한 농촌 지역에서 지지를 받던 말레이-이슬람당은 2022년 총선에서 15%의 득표율을 기록해 단일 정당 중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경기 침체를 염려하는 분위기로 인해 도시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투표할 때 ‘이슬람을 옹호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정치 컨설팅 업체인 인보크(Invoke)의 아디브 아즈란(Adib Azlan) 대표는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격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영상을 퍼뜨리면서, 말레이시아 무슬림 이외의 다른 인종들과 지역사회에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기도24·365본부 종합).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스가랴 10:2,12)**

하나님, 정치인들의 부패와 경기 침체 위기 앞에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의 선동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사회에 불안이 커져가는 말레이시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진실하심이 주께만 있사오니 거짓된 말과 헛된 위로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진리로 견고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젊은 세대와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져 사람들의 마음이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나아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자유와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 ▲ 네팔 시위대 교도소 급습·폭동…수감자 900명 탈옥, 20여 명 사망

네팔에서 정부의 소셜미디어(SNS) 차단과 부패에 반발한 시위대가 교도소를 급습하고 폭동을 일으켜 수감자 900여 명이 탈옥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스페인 EFE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날 중부 간다기주 포카라의 카스키 교도소가 습격을 당하고, 서부 수두르파침주와 중부 바그마티주 교도소에서도 방화가 발생했으며, 시위대는 정부 청사와 정치인 자택에도 방화를 저지르며 혼란을 확대했다. 이에 군 병력이 도심에 배치돼 치안 유지에 나섰으며, 유엔과 인도 등 국제사회 역시 시위대의 폭력 사태를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네팔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등 26개 SNS 접속을 차단한 데 대한 반발과 부패·경제 문제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이 맞물리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고무탄을 동원해 진압했으며, 현재까지 20여 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다쳤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로마서 3:10-12,22)**

하나님, 비폭력 평화 시의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정부의 부당한 대응으로 인해 폭발해 항방 없이 흘러가고 있는 일촉즉발의 사태를 다스려 주시고 폭동을 잠잠케 하소서. 주님의 의가 아니면 인간으로서 공의로울 수 없고 함께 치우쳐 선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네팔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도를 이 땅에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소서.

## ▲ 니제르, ISIS연계 무장단체 민간인 공격 증가

서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아이시스(ISIS, 이슬람국가)와 연계된 무장단체의 민간인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날 보고서에서 “IS사헬(ISSP)이 올해 3월 이후 니제르에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확대해 왔다”며 “이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IS사헬은 지난 3~6월 서부 틸라베리 지역에서 최소 5차례 공격했으며, 127명여 명의 마을 주민과 이슬람 신자를 즉결 처형하고 수십 채의 가옥을 불태우고 약탈했다. 목격자들은 니제르 군정이 공격 경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보호 요청을 무시했다고 전했다. 부르키나파소, 말리와 국경 지역인 틸라베리는 지난 10년간 IS사헬의 활동 중심지다. 분쟁 감시 비정부기구(NGO)인 ‘무장 분쟁 위치 및 사건 자료 프로젝트(ACLED)’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니제르에서 IS사헬이 살해한 민간인은 약 1,600명에 달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예레미야 3:22)**

하나님, 이슬람 극단 단체들이 오랜 시간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지속했지만 이에 대한 온전한 대응도 못 하며, 주민들의 요청에도 무시하는 니제르의 상황을 의탁드립니다. 피 흘리는 살육을 일삼아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이슬람 세력들을 꾸짖어 주시고 이슬람에 대한 맹목적 헌신으로 하나님을 배역한 이들의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특별히 국가의 억압, 무장세력의 표적이 되어 이중적 박해를 받는 소수의 기독교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고난 중에도 함께하사 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소서.